



## 질병관리본부 항의 집회 현장을 가다!

집회 준비를 위해 녹번동에 위치한 질병관리 본부로 출근길에 오른 지난 5월 16일 아침 무거운 마음과 달리 아카시아꽃 향기가 봄날의 화창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매년 이때쯤이 가금관련 업체와 농가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이다. 여름 복날을 대비해 입추를 서두르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AI 여파로 관련업체와 농가 등 가금업계 종사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모으며 간신히 버텨오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시민들에게 공포분



위기를 조장해 가금 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오전 10시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계란유통협회 등 관계자 분들과 집회 준비에 들어갔다.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에게 전단지도 나누어 주고, 피켓과 퍼포먼스를 위한 것들도 준비했다.

준비를 마치고 점심은 근처 삼계탕 집으로 먹으러 갔다. 삼계탕을 먹는 동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은 한명도 없었다.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손님이 없어 힘들다”고 하셨다. 식당 아주머니께 심심한 위로를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왔다.

집회장에 돌아와 보니 집회 참가자들의 관광버스가 전국에서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리 회원사들의 관계자 분들도 하나둘씩 도착해 인사를 나누었다.

집회 신고는 600명으로 했는데 전국에서 올라온 참가자들은 천여명은 넘는 것 같았다. 거기에 각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 30여명이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오후 2시 드디어 집회 시작을 알리는 (사)대

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의 발표에 질병관리본부가 떠나갈듯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개회선언문이 낭독되고 국민 의례와 함께 본격적인 집회행사가 진행되었다.

경과보고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기관의 잘못된 언론보도를 지적하자 집회 참가자들의 함성은 점점 더 커졌다.

그동안 정부관련 기관에서는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었던 병사의 경우 폐렴증세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AI의심환자로 분류하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모든 언론에 공개하는 처사를 보였으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감기 증상도 AI 의심사례라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보건당국에 신고하라는 보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9일 질병관리본부가 감사원에 AI 대유행시 환자 900만명, 사망자 5만명이 예측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현 불가능한 가상시나리오를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① 집회시작 ② 닭·오리를 위한 위령제 ③ 서성배 회장 연설





④ 단체장 연설(서성배 회장) ⑤ 질병관리본부로 진입 시도 ⑥ 질병관리 본부장과 면담  
⑦ 질병관리 본부장의 공개사과 ⑧ 결과보도를 듣고 환호하는 참가자



언론에 유포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우리 관련업체와 양계농가, 오리농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이다.

오후 4시 (사)한국계육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계란유통협회 등 회장단 5명이 대책마련을 위한 질병관리 본부장과 면담에 들어갔다.

면담이 길어질수록 집회 참가자들의 울분과 함성은 커져만 갔다.

이때 집회에 참석한 한 농가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지역에서 육계농장을 운영하는 분으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오후 6시가 다 되어서 질병관리 본부장과 면담이 끝나고 회장단과 질병관리 본부장이 질병관리본부 본관 앞으로 나와 기자들 앞에 섰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가금관련업체에 공식사과와 함께 “가금관련단체들과 면담을 통해 국내산 가금 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AI관련협의회 구성을 통해 TV 및 주요 일간지에 대해서도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회를 마치고 정리가 끝난 후 병원으로 이송된 분을 뵙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셔서 뵙지 못하고, 환자분과 가까운 지인들과 마음 아픈 얘기를 나누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우리 관련업체와 농가들은 질병 문제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질병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당사자들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관련업체와 농가들을 위해 지원과 협조는 물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AI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는 농가와 관련업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닭고기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즐겨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 취재 · 정승일 기자(jsid@naver.com)